

개장 10주년 순천로컬푸드 매출 1천억 달성 '금자탑'

시민 주주 참여... 수익 86% 농가 환원 직매장 3곳·온라인몰·외식사업 등 확장 취약층 돌봄·환경 정화 사회 가치 실현

순천로컬푸드가 개장 10주년을 맞아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먹거리 플랫폼으로 우뚝 섰다. 단순한 농산물 유통망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일군 '순천형 먹거리 선순환 모델'은 누적 매출액 1천억원 돌파라는 눈부신 금자탑을 쌓아 올리며 지역 경제 상생의 전국적인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로컬푸드는 지난 2016년 3월 1천92명에 달하는 시민 주주가 참여해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지역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탄탄한 구조를 확립했다.

그 결과 같은해 5월 직매장 개장 이래 지난해 12월까지 총 1천92억원이라는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총매출의 86%가 고스란히 지역 농가에 환원되며 농업인들의 든든한 소득 창출구 역할을 해냈다.

월 1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2017년 50농가에서 2025년 190농가로 4배가량 증가했으며, 출하 품목 역시 320개에서 3천192개로 약 10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이러한 혁신적인 성과는 '지역먹거리지수 A 등급 우수상 수상',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 사업장 선정' 등 대외적인 호평과 영예로 이어졌다.

순천로컬푸드는 순천만국가정원점 개장을 신호탄으로 조례호수공원점, 신대점까지 오픈라인 직매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했으며, 온라인몰 '함께가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현재 직매장 등록 회원은 4만명(순천시 세대수 약 31%), 온라인몰 회원은 1만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시민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에 당일 판매되지 않은 신선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적극 활용하는 '여미락 레스토랑'을 운



순천시로컬푸드가 개장 10주년을 맞아 누적 매출액 1천억원 돌파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상생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순천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순천시 제공>

영해 농산물 폐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 가치를 극대화했다.

나이가 '여미락 도시락'을 통해 예비군 훈련장, 농작업 현장, 학교 및 취약계층에 고품질 로

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며 외식 및 공공급식 영역으로까지 플랫폼의 영토를 넓혔다.

경제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역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식자재를 제공하는 '먹거리 복지 모델'을 구축했다.

어르신 식사 지원 및 문화 활동 연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조성, 대학 현장 실습을 통한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자원순환 축제, 지구의 날 쓰담견기 등 친환경 실천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로컬푸드의 지난 10년은 농가와 시민, 그리고 행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이뤄낸 지역 선순환의 위대한 역사"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희망을,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밥상을 제공하며 가장 모범적인 순천형 로컬푸드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로컬푸드는 시민들의 10년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개장 10주년 감사대축제'를 개최했다.

/순천=곽동현 기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구례향제줄풍류 공연 모습. <구례군 제공>

'구례향제줄풍류' 광주서 남도의 품격 전한다

오는 19일 예술의전당 소극장서 개최 거문고·단소·대금 등 전통 기악 합주

구례군의 대표적인 국가무형유산인 '구례향제줄풍류'가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역사적인 첫 순회공연을 펼친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는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구례향제줄풍류 빛고를 순회공연'을 개최하고 전곡을 연주한다.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구례향제줄풍류는 거문고를 중심으로 단소, 대금, 피리, 가

아금, 해금, 양금, 장고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전통 기악 합주다.

과거 선비들이 방 안에서 즐기던 '방중악(房中樂)'의 전통과 남도 풍류의 멋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공식 공연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은 전남·광주 광역 통합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열려 두 지역의 문화적 연대를 다지는 계기로 의미가 깊다.

행정적 통합 흐름 속에서 구례가 40여년간 지켜온 고유의 전통음악을 광주 시민과 나누며 남도 문화의 깊이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공연은 본풍류, 잔풍류, 뒷풍류 등 총 3부로 구성돼 특유의 장중하고 섬세한 가락을 가감없이 선보인다.

다스름과 본연산으로 시작해 세령산,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을 거쳐 풍류 거거리로 이어지며 줄풍류의 깊은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명화 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장은 "광주에서 첫선을 보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리산처럼 굳건하고 섬진강처럼 유장하게 흘러온 우리의 소리가 광주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장성군, 대형 공사현장 특별 안전점검

19일까지 취약 공사장 25곳 대상

장성군은 14일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실이나 옹벽 붕괴, 가시설 전도 등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24년 이후 착공한 바닥면적 500㎡ 이상 공사장 15곳을 비롯해 부지면적 3천㎡ 이상 사업장, 중점 안전관리 대상 개발행위 허가지 등 총 25곳이다.

군은 관계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전담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해 오는 19일까지 밀착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축대, 옹벽, 가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시공 상태를 살피고 토공 및 배수 관리 실태,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해 요소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구조적인 안전 결함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나 보강 지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파악된 공통적인 문제점은 향후 인허가 및 현장 관리 기준에 적극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탄탄히 보완할 계획"이라며 "빈틈없는 사전 대비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흥군, 공동과제포 영농기술 공유 성료 4-H연합회 연계 드론 시연회 등 진행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4-H연합회 주관으로 장흥읍 행원리에 마련된 식량작물 공동과제포에서 모내기 작업과 영농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청부부 생산단지 운영을 통해 회원들 간 선진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신규 회원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농업인들은 직접 기계 모내기를 수행하며 실무를 익혔고, '장흥블루-청년농부 연구회'가 주관한 농업용 드론 시연을 통해 최신 스마트 농업 기술을 체험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 교육과 논물 관리, 주변 환경 정화 등 저탄



소 농업 기술을 실천하는 탄소중립 캠페인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임선호 장흥군4-H연합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재배 기술을 나누고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곳에서 정성껏 수확한 쌀은 연발 어려운 이웃에게 전량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동과제포가 청년 농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실습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기술 보급과 역량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보성군 '거점 보건지소' 도입...의료 공백 최소화

복내·검백·울어·문덕면 운영

보성군은 14일 "농촌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 거점 중심의 새로운 보건지소 운영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8일부터 북부 4개면(복내, 검백, 울어, 문덕)을 대상으로 권역 거점 중심 보건지소 체계를 가동 중이다.

복내면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복내보건지소가 상시 의료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 1차 보건 의료서비스를 총괄 제공한다.

권역 내 나머지 3개 면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고령화율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주민들이 먼 거리를 오가지 않고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학성 군보건소장은 "거점 중심 체계 구축으로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주민 건강을 든든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시, 수목관리로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

섬박람회 대비 주요 공원 집중 정비

여수시는 14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수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약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수목 연간 단가 사업을 통해 관내 도시공원 170개소(240ha)와 녹지 332ha를 대상으로 수목 전정, 관목 정비, 예초작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업 횟수를 늘려 연간 6회 이상 관리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공원 내 녹지환경을 효율적

으로 가꾸어 수목의 건전한 생육과 이용객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주요공원과 가로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해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계절별 수목 생육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도 병행해 공원의 경관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녹지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 복지기동대, '태양광 안심등' 설치

담양군은 "최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골목을 대상으로 '태양광 안심등' 설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야간 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한전MCS와의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진행됐다.

대원들은 안심등 설치에 그치지 않고,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집 안팎에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하고 노후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재 담양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은 저

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선미 주민복지과장은 "복지기동대는 지역 곳곳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